

#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제17차 세계병자의 날” 행사 개최

(사)한국가톨릭의료협회가 주최하고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이 주관하는 ‘제17차 세계병자의 날’ 행사가 2009년 2월 11일(수) 오후 4시부터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상지홀(9층)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한다는 인식을 환우들에게 심어주고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치유의 은총을 청하며, 또한 환우를 돌보는 의료인들과 봉사자들이 더욱 큰 보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되었으며, 1부 기념식에서는 원목실장(백광현 세례자 요한 신부)의 시작기도를 시작으로 병원장(박재만 타데오 신부)의 개회사와 (사)한국가톨릭의료협회장(최영식 마티아 신부)의 기념사가 이어졌으며, 생활성가 가수 ‘신상옥 안드레아’와 생활성가팀 ‘이사야 53’의 축하공연이 열렸다. 2부 기념미사는 대전교구장 유홍식 라자로 주교의 주례로 초청 사제단이 공동 집전했다. 강론에서 유 주교는 전 세계에서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과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세계 병자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고통 중에 있는 분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전하며 ‘17차 세계 병자의 날’에 대한 교황 담화문에 대한 설명을 했다. 3부에서는 대전교구장이 전인치료센터(호스피스병동)와 51병동, 52병동을 방문해 입원 중인 환자들을 격려하고 안수했다.

이에 앞서 식전행사로 오전 10시부터 입원환우들과 외래 내원객에게 선물과 다과를 제공하여 병자들에 대한 관심과 정성을 전달하였고, 오후 3시부터는 소아병동 입원 환아들을 위해 <꼬마등이 꿈을 담은 날개옷 짓기>를 주제로 율동과 페이스페인팅, 옷 만들기 등으로 놀이마당을 마련하여 잠시나마 아픔을 잊을 수 있도록 즐거움을 선사했다.



날-나 가거라.  
네 믿음-너를 구원하셨다. (루카 17:19)

질병에 찬 예수 그리스도, 제해는 많은 이들과  
인생을 온전히 보듬어주는 하느님에 대한 감사와  
고령이 주님을 영혼이다.  
주교님들의 사랑과 기도하라는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리노라 믿어 찬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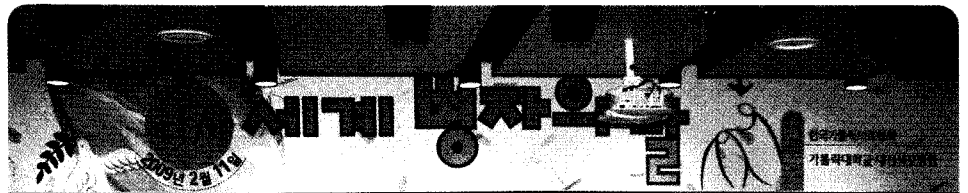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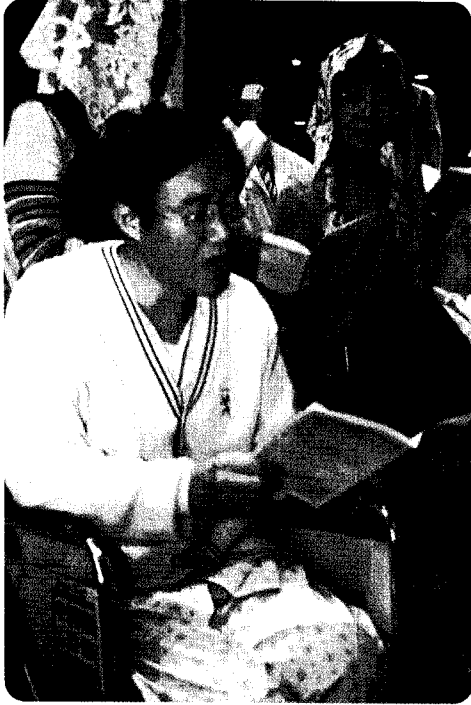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여러분 가운데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는 어떤 사랑을 구원하고,  
우리의 사랑은 어떤 위로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든 기도를 기쁘게,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이 날마다  
되리라 기쁘게 기도를 올리노라 믿어 찬양합니다.

(2월 11일 8:14-16)





↑ 세계병자의 날 기념식에 참가한 함우 및 교직원

↓ 신상옥 안드레아와 함께하는 축하 공연  
\\ 외래 선물 나누는 모습 1, 2

